

‘묻지마 폭행’ 관용없다... 정식재판 넘겨 엄벌

‘쳐다본다’·‘기본 나쁘다’ 폭행 등 죄질 불량 폭력 강력 대처 광주지검 안전 사회 만들기 의지...약식 대신 잇단 재판 청구

#1. 페이스북에 올린 자신의 ‘악어사육 동영상’에 ‘악성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대전에서 직접 광주로 와서 댓글을 단 10대 청소년을 납치·폭행한 ‘SNS 스타’<광주일보 2월29일자 7면> A(28)씨를 지난 달 29일 정식 재판에 넘겼다.

#2. ‘기본 나쁘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B(여·17)양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김치찌개가 끓고 있는 테이블에 넘어뜨린 뒤 수차례 폭행해 화상 흉터를 남기게 한 2명을 지난 17일 구속했다.

#3. 숙박업소 부근에서 ‘마음에 든다. 연락처를 달라’며 도망가는 여성 2명의 손

목을 붙잡아 당기고, 이를 말리는 숙박업소 종업원에게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C(폭력전과 3회)씨에 대해 통상의 약식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기본이 나쁘다’, ‘아껴 부딪혔다’, ‘쳐다봤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묻지마’ 폭력 사범에 대해 검찰이 엄벌에 나섰다.

19일 광주지검(검사장 김희재)에 따르면 지난 달 1일부터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시행한 결과, 이날까지 11명을 구속하고 96명을 불구속 구공판(정식재판에 회

부하는 기소) 처분했다.

특히 ‘죄질 불량’ 유형을 구체화한 다음 모든 폭력사건을 전면 재검토해 3명을 구속하고 74명을 불구속 구공판했다. 약식명령 폭력사건 32건 중 7건(8명)에 대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묻지마’ 폭행이나 ‘기본 나쁘다’ 등 사소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선량한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한다며 ‘죄질이 불량한 사례’로 분류했다.

이로 인해 기존의 경우 약식명령에 그쳤을 이 같은 사건들에 대해 재검토를 통해 죄질이 중할 경우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상습 폭력이나 묻지마 범죄가 강력 범죄로 전환하는 것을 차단하고, 폭력

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광주지검은 설명했다.

검찰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3년 이내에 폭력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두 차례 넘게 받은 전과자가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르면 구속 기소하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형 기준상 형량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선고형이 구형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할 때는 적극 항소할 방침이다.

구분선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작은 폭력이 큰 폭력·우발적 살인의 시작이다”며 “경미한 폭행도 엄중하게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별다른 이유 없는 폭력사범은 엄단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

박준영 당선인 구속영장 기각

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수억원대 공천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 당선인(영암·무안·신안)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박 당선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밤 늦게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있는지, 즉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당선인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구속기소)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 당선인은 “제3자를 통해 봉투를 전달받았지만, 돈인 줄 몰랐으며 사무실 접견실 소파에 둔 채 그대로 자리를 뒀다. 이후 사무실 직원이 발견하고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당선인은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남부지검을 나서면서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며 “저를 항상 믿어주셨던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 걱정해주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軍 폭행사건 발생 뎀 피해자 의사 상관없이 처벌 국방부 군형법 개정안 가결

군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부대 간부가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중용해 폭행사건을 덮어버릴 수 있는 여지를 없앤 것이다.

국방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지난해 6월30일 국회에 제출한 이 개정안은 병영 구타와 가혹 행위를 근절하고자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개정을 통해 영내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목인·방조한 장병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전 전남개발공사 사장 2심도 배임 혐의 무죄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9일 ‘예산을 낭비했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전남개발공사 사장 전모씨와 전 개발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과정에서 외부에 감리를 맡겨 40억원대의 예산을 낭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외부에 감리를 맡긴 것은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경영진으로서 경영상 판단으로 보이고, 외부 감리 위탁이 개인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36억대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폭 등 57명 무더기 검거

은행·보험사 형식 심사 악용 광주경찰청, 도주한 4명 추적

가짜 전세 계약서를 만들어 은행과 보험사를 상대로 수십억원대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조직폭력배 등 5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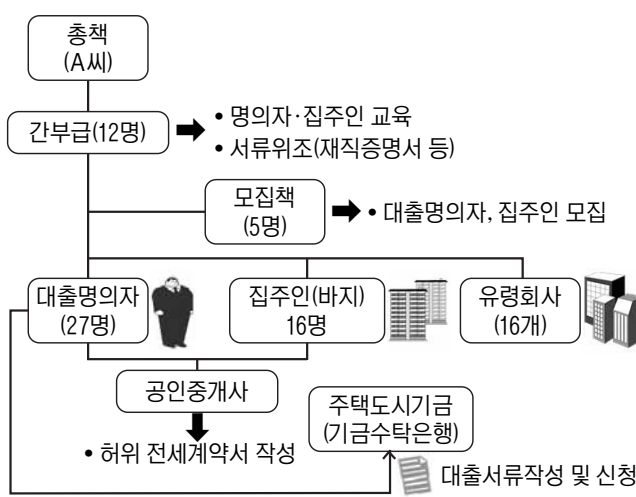
이들이 서류를 위조해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은행과 보험사의 형식적인 대출심사 때문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9일 가짜 서류를 이용해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광주지역 폭력조직 조직원 A(30)씨 등 21명(조폭 5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랴 추적 중이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은행 5곳과 보험회사 3곳으로부터 36억원의 전세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대출사기를 주도한 13명은 대출금의 60%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으

■ 조폭주도 전세자금 불법대출 사기단 조직도



며, 나머지는 모집책이나 주택 명의자가 10%씩을 나눠 가졌다. 실제 대출 명의자가 받은 금액은 대출 원금의 20%가량이다. 모집책들은 신용등급이 낮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인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다.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접근해 대출 명의자를 모집했다.

대출사기를 주도한 A씨 등은 대출 명의자와 부동산 소유자를 사전에 교육했으며, 사무실을 차리고 여직원을 채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국토부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무담보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A씨 등은 은행과 보험사의 형식적인 서류 심사를 범조에 악용했다. 전세자금 대출은 채무자가 원금을 갚지 못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원금의 90%를 보전해주는 구조다.

특히 A씨 등은 은행권과 보험회사 사이에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 하나의 아파트에 같은 전세 계약서로 같은 날 동시에 대출을 신청, 대출금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금융기관이 원금 손실 위험이 적은 점을 믿고 현장 확인과 같은 절차 대신 전화로 대출 명의자의 근무 사실만을 확인한 뒤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결국 정부 기금의 관리 부실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호남고속도 변호판 없는 차량 100km 추격전

경찰 2명 부상... 실탄 쏘 검거

변호판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운전자가 흥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쓰러졌다. 이 운전자의 차량에서는 다량의 흥기가 발견됐다. 19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장성군 호남고속도로 장성IC에서 변호판 없이 카니발 차량을 운전 중인 김모(49)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이날 앞뒤 변호판이 모두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다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이산에서부터 장성 인근까지 100km가량 추격전을 벌였다. 차에서 내린 김씨는 흥기를 휘두르며 경찰에게 격렬하게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흥기에 찰려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결국 실탄으로 김씨의 왼쪽 허벅지를 쏘 제압해 검거했다. 김씨는 검거된 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목 비권을 행사하면서 수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김용호기자 yongho@



지방의원 지위를 인정받은 이마옥 광주시의원 등이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승소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전남 통진당 지방의원 5명 지위 인정

광주지법 판결... 곧 등원할 듯

전북에 이어 광주·전남에서도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가 인정됐다.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퇴직은 부당하다는 판결이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19일 옛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인 이마옥 광주시의원 의원 등 5명이 광주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원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에게 의원직 지위가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해당 의원은 이 의원을 비롯해 오미하

전남도의원, 김재임 순천시의원, 김재영 여수시의원, 김희희 해남군의원 등이다. 이들 의원들은 법원으로부터 지방의원 지위를 인정받음에 따라 해당 지자체·지방의회와 협의해 조만간 모두 의원직에 복귀할 전망이다. 이마옥 광주시의원의 경우 다음달 1일 제249회 임시회부터 등원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옛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이들 의원은 이에 반발해 “통진당 해산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개 학원 운영 학원장의 꿈수... 수강생들 이용 보조금 가로채



○...음악학원 수강생들을 컴퓨터학원 수강생으로 둔갑시켜 수강료로 둔갑시켜 수 천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60대 학원 원장이 경찰서행.

○...1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여·60)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음악학원 수강생 86명을 직업훈련비 지원대

상인 컴퓨터 수강생으로 둔갑시켜 2100만원을 가로챈 혐의.

○...김씨는 실용음악과 컴퓨터 과목을 가르치는 두 개의 학원을 동시에 운영하며 수강생을 둔갑시켰는데, 경찰은 “김씨가 실사 과정에서 불법이 적발되자 수강생들의 전화번호 끝자리를 다르게 기재하는 꿈을 부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노대지구 3층 상가 건물매매

노대동 광주은행 코너자리

◆ 토 251평, 건 431평

◆ 상가밀집지역, 아파트 밀집지역

1층 (상가 8칸)

2층 (상가 4칸)

3층 (원룸 8개, 투룸 5개)

□ 보 1억 6천, 월 1,500만

□ 매가 → 28억

010-6670-9800 010-7384-7800

(주)대신경매

법률경매

(특수물건 추천)

□ 동구 동명동 (8층상가 오피스텔)

→ 토 211평, 건 606평

→ 요양병원 추천, 주차 원비, 4차선 도로 접

→ 법원 조대 부근, 임대객정 없음

□ 감정가 19억 5천 - 최저가 13억 7천

□ 북구 운암동 (5층 상가 건물)

→ 토 66평, 건 194평

→ 지하음식점 1층~3층 (전71㎡) 4~5층(사무실)

→ 운암동 공구의거리, 광고효율 좋음

□ 감정가 7억4천6백 - 최저가 5억9천7백

□ 서구 양동 (숙박 시설)

→ 토 174평, 건 424평

→ 1층 (주차장,기운터) 2층~5층 (숙박시설,40개)

→ 광주은행 동쪽 인근, 약 10m 도로접

□ 감정가 10억 8천 - 최저가 4억 8천

□ 북구 매곡동 (4층 상가 상가건물)

→ 토 223평, 건 381평

→ 1층 (식당) 2층~3층 (학원) 4층 (사무실)

→ 주변 아파트 단지, 4~5m 진입로, 주차원비

□ 감정가 12억 - 최저가 9억7천2백

□ 담양 (전원주택)

→ 토 146평, 건 18평

→ 금성중학교 인근, (주변 식당,전원주택지)

□ 감정가 6천 2백 - 최저가 6천 2백

□ 남구 주월동 (5층 상가건물)

→ 토 103평, 건 380평

→ 1층 (사무실) 2층~5층 (학원,사무실)

→ 재석중학교 부근, 아파트,상가 밀집지역

□ 감정가 7억9천6백 - 최저가 5억5천7백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실전 교육 듣고 바로 수익창출 가능

□ 매주 수요일 (오전)

□ 입학부터 임대, 매매, 기획(회까지) (원스톱 강의)

☆ 경매 실전 교육 ☆

바로 실전으로 수익창출 하실분!

특수물건, 유채권, 가정법원 경매입찰 등 실제 경험, 가장 중요한 실무교육 합니다.

(주)대신경매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

062-511-7800 010-6832-9700